

LG하우시스, 단열재 사업 진출

PF보드 400만평방미터 공장 신규가동 ... 외단열공법 확대

LG하우시스(대표 오장수)가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인 PF보드를 국산화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섰다. 9월30일 LG하우시스는 충북 청원군 옥산산업단지에서 400만평방미터의 PF보드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PF보드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수지를 친환경가스로 발포해 에너지효율성을 극대화한 무기 단열재로 얇은 두께에서도 최고 수준의 단열 효과를 낼 수 있어 선진국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218평방미터 기준 주택에 PF보드를 적용하면 같은 두께의 기존 단열재보다 냉·난방비를 연간 최대 14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단열재의 절반 두께로 동일한 단열 효과를 발휘해 공간 활용도를 6평방미터 높일 수 있다.

PF보드는 한국방재시험연구원의 준불연 인증을 획득했으며 장기간 사용해도 단열 성능이나 제품 외관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LG하우시스는 부착력이 우수하고 복사열 차단 기능을 갖춘 PF보드를 건축물 외벽에 채용해 공간 활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높이는 외단열 공법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녹색건축 인증기준과 건축물 단열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공서, 공기업 등 신축 청사 대부분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화재에도 안전한 단열재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단열재 시장은 2012년 말 고성능 단열재 450억원을 포함한 4125억원으로 2016년에는 고성능 단열재 1600억원을 포함 총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30>